

출판통계와 오보

백 원 근 · (재)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2005년 들어 필자의 주목을 끈 첫 책은 『젠틀 매드니스(Gentle Madness)』였다. 책을 수집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친 점잖은 미치광이, 즉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이름난 애서광(愛書狂)과 장서가(藏書家)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하지만 이 책이 표상하는 지극한 책 사랑의 상징성과는 대척되는 지점에서 출판계는 새해를 시작했다.

올해 벽두부터 「한국인 책값 지출 거의 '제로」라는 보도가 거의 모든 매스컴의 기사, 사설, 칼럼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국민들의 빈약한 도서구입 실태가 새삼스럽게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지난해 말 출판계 유력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가 이른바 '사재기' 혐의가 있는 출판사들의 책을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제외시키도록 요청하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공방이 언론에 전해져 일반 독자들까지 눈살을 찌푸리는 일도 있었다. '사재기' 문제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가동시켜 풀 문제이지 출판단체가 전면에 나서 '손에 피 묻히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서 구입비가 바닥 수준이라는 말도 그렇고, 1997년 이래 4년 주기로 터지고 있는 사재기 파문도 그렇고(2001년 파문에 대해서는 당시 『문화예술』 9월호에서 상술함), 내막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것이 없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구태를 환기시켜 주는 지식정보사회의 자화상이다. 그리고 책이 안 팔린다고 아우성인 풍경과 부정확한 방법까지 동원해 책을 많이 팔려고 하는 행위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 듯하다. 그런데 앞의 것은

가계 지출과 독서문화의 지표로 보여주는 통계청 통계를 오용한 사례이고, 뒤에 것은 베스트셀러 통계 조작을 노린 악덕 상행위라는 측면에서 '통계 이용의 작위성'을 보여주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출판 관련 통계의 문제점과 오용사례를 진단하고자 한다.

한국인 책값 지출, 거의 제로 수준?

1월 초 대부분의 언론은 한국인의 도서구입비가 거의 없음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했다. 이와 관련된 제1보는 연합뉴스(2006.1.3)의 「한국인 책값 지출 거의 '제로' 수준」이라는 기사였다. "한국인들은 책을 구입하는데 거의 돈을 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4분기에 전국 가구의 서적·인쇄물 지출액은 1가구당 월평균 1만 397원으로 ……(중략)…… 전체 월평균 소비 지출액인 204만 8,902원의 0.5%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략)…… 게다가 신문구독료가 월 1만 2천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인들의 책 구입비는 거의 제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모를 위한 이미지용, 장신구비는 월평균 5만 9,611원으로 서적·인쇄물의 5.7배에 이른다 ……(중략)…… 외식비는 월평균 24만 5,807원으로 서적·인쇄물의 23.6배였다." 통계청이 1963년부터 실시한 가계조사*는 가구실태 및 가계수지 관련 567개 항목을 매월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번호 보도된 2005년 3/4분기 조사는 전국의 7,255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근로자 가구가 57%(서무직 24%, 생산직 33%), 근로자 외 가구가 43%(자영업 29%, 무직 14%)였고, 평균 가구원 수는 3.3명,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는 1.4명이었다. 도서구입비 비중이 낮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구당 구독률이 40% 이하인 신문구독료를 무리하게 적용시킨 기사였다.

이에 관해 통계청은 『「한국인 책값 지출 거의 '제로' 수준」 보도(1월 3~4일)에 대한 참고자료』라는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신속히 발표했다. 전국 가구당 월평균 서적 및 인쇄물 지출액은 1만 397원으로, 여기에는 신문·잡지·서적(단, 학생용 교과서·참고서·학습지 등은 제외) 등의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신문 구독료가 1만 2,000원이라 해도 전체 가구가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차감한 금액을 서적 구입비로 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이다. 통계청은 2004년도 연간통계를 인용해 서적 및 인쇄물의 구입 비중은 서적 70.9%, 일간신문 25.2%, 잡지 및 기타 인쇄물 3.9% 정도라고 참고 자료를 제시하여 약 7천 원 정도는 도서구입비이며 약 3천 원 정도가 신문구독료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를 반영한 보도는 거의 없었다.

어쨌든 몸의 양식을 구하되 정신의 양식을 구하지 않는 풍조, 머리 바깥은 꾸미되 머릿속은 꾸미지 않는 세태를 꼬집으며 새해를 맞아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우려 했던 언론의 취지는 심분 공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집집마다 한 달에 책 한 권밖에 안 사보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메시지 대신 '국민 대부분이 책을 아예 안 산다'는 메시지를 제시한 것은 오류이다.

이와 관련, 가구당 총 지출에서 서적 및 인쇄물 구입비 비중은 2004년 기준으로 일본이 1.69%로 한국의 0.56%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눈길

을 끈다(몇몇 신문에서는 이 사실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 역시 표피적인 것이다. 일본은 우리와 정 반대로 신문구독료 비중(63%)이 압도적으로 높고, 도서구입비 점유율이 22%에 불과해 순수한 도서구입비 비율은 한국이 일본보다 오히려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도서구입비 비중만 놓고 보면 한·일 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표1] 참조).

[표1] 한국과 일본의 가계당 월평균 지출액(2004년 월평균 기준)

항목	총 지출액	서적 및 기타 인쇄물	신문	서적	잡지	기타	서적구입 비중
한국 (원)	1,963,316	10,931	2,755	7,750	426		0.39%
일본 (엔)	280,440	4,749	2,983	1,040	476	250	0.37%

자료 : 한국 통계청 『가계조사연보』, 일본 총무성 통계국 『전국소비실태조사』

참고로, 전체 가계 지출 부문 가운데 교육비와 교통통신비는 한국이 높게 나타난 반면, 교양오락비는 일본이 2배 많은 점은 특징적이다([표2] 참조). 사회적 특성이나 산업 편재 양상을 짐작하게 하는 수치이다.

[표2] 한국과 일본의 월평균 가계지출 구성비(2005년 3/4분기 월평균, 일본은 9월 기준)

항목	식료	주거	광열 수도	가구 가사	피복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한국	27.3	3.4	3.5	4.2	4.3	5.0	13.3	5.3	18.1	15.7
일본	23.3	7.1	6.6	3.3	3.4	4.3	5.2	10.4	13.9	22.4

자료 : 한국 통계청 『가계조사연보』, 일본 총무성 통계국 『가계조사보고』

통계청의 가계지출 관련 역대 조사 결과(KOSIS 통계DB)를 보면 도서구입비는 소폭 증가 추세를 보여 반드시 비관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문제는 그 증가율이 전체 지출 규모나 다른 분야 들보다 매우 낮다는 것이다. 피부로 느끼는 책의 상대적 비중 약화 또는 열패감을 통계가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도시 근로자 가구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 서적 및 인쇄물 구입비는 95년 7,400원에서 2004년 1만 1,800원, 2005년 3/4분기 1만 2,300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약 10년 사이에 60% 증가한 것이다. 신문구독률이 급감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결코 나쁘지 않은 숫자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교양오락서비스 비용은 2.3배(2만 9,400원→6만 7,100원), 교통통신비는 2.6배(14만 4,800원→38만 4,100원) 증가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월평균 가계 소비지출은 지난 2년 사이에(2003년 3/4분기→2005년 3/4분기) 187만원에서 205만원으로 9.5% 증가했고 교양오락비도 13.2% 늘어났으나 서적 및 인쇄물은 -3.5%를 기록했다.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서적 및 인쇄물 구입비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데, 직종별로도 근로자 가구 중 사무직 가구가 1만 9,951원이지만 생산직의 경우는 5,260원으로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언론이 서적 및 인쇄물 구입비로 통칭해 우리 국민들의 도서구입비가 전혀 없는 것처럼 호들갑스런 우려를 보였으나, 이는 직접적으로 정기간행물 구독료에 해당한다. 도서구입비와 독서실태를 직결시키는 것도 논리의 과장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도서구입비 자체는 교육비를 제외한 다른 분야보다는 증가율이 높다는 측면을 주시해야 할 것이며(표3 참조), 독서하는 사회환경과 풍토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표3]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 지출 추이

	1984	1994	2004	1984~2004 증가율	1994~2004 증가율
총 지출액	281.7	1,113.7	2,043.7	7.2배	1.8배
식료품	108.5	331.5	555.6	5.1배	1.7배
피복·신발	22.2	83.8	106.4	4.8배	1.3배
교육비	19.1	96.3	233.1	12.2배	2.4배
일간신문	0.6	2.0	2.8	4.7배	1.4배
서적	0.9	5.1	8.6	9.5배	1.7배
잡지	-	-	0.3	-	-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연보」

한겨레 제2창간운동본부 독자배가추진단 홍세화 단장은 1월 4일자 '홍세화의 수요일' 블로그(<http://wnetwork.hani.co.kr/hongsh/485>)에서 「통답과 답대가리」라는 제하에 “답의 해도 물러갔으니, 우리도 매달 통답 한 마리 값이라도 책을 구입하여 답대가리를 면합시다”라고 일갈했다. 지당한 성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가 아닌 개인적인 '도서구입량' 증대를 캠페인 식으로 호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식의 전당이자 사회적 문화자본의 핵심인 각급 도서관의 대대적 증설을 통한 윤택한 독서환경 구축, 독서교육과 NIE(신문활용교육) 강화 등 독서습관 배양에 국가적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뉴스위크가 올해의 이슈로 '지식혁명'을 내건 이유를 '웰빙천국'의 정부 관리들은 곱씹어볼 일이다.

한국인 독서시간은 세계 꼴찌?

▶ 사례

▷ 한국인 독서시간 30개국 중 꼴찌(2005.6.29, D일보)
"세계 최고의 책벌레는 인도인들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들의 독서시간은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미디어 연구기관 NOP월드가 전 세계 30개국 3만 명을 대상으로 책, TV, 인터넷 이용시간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독서는 인도(주당 10.7시간) …(중략)… 조사대상 30개국 중에서 독서시간 끝내는 한국(주당 3.1시간)이 차지했으며…(중략)… 30개국의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독서가 6.5시간……”

대부분의 일간지나 방송에서 수도 없이 다뤄진 이 기사는 한국인들의 독서 부족을 세계적인 측량대 위에 올려놓고 자책하며 각성시키기에 충분한 뉴스였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BBC 뉴스 인터넷 판에는 “주당 책, 신문, 잡지 독서시간”이라 적시하여 책뿐만이 아닌 인쇄매체 전체의 접촉시간을 측정했다고 되어있다. 또한 “인도 정부 조사에 따르면 농촌인구의 1/3 이상, 도시인구의 15%는 아직 문맹 상태이며” 인도의 작가 겸 편집자인 타룬 테즈팔(Tarun Tejpal)은 이러한 “인도의 높은 문맹률을 반영하지 않은 조사”라 일축했다. 이러한 인도가 최고의 국민 독서시간을 기록했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사 결과라고 BBC는 분명히 지적했다.

또한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통계조사』(2004.6 조사)에서 TV 시청시간이 주당 22.2시간(NOP조사는 15.4시간), 문화관광부·한국출판연구소가 발표한 『국민 독서실태 조사』(2004.11 조사)에서 ‘일반 도서’ 독서시간이 주당 약 8시간(NOP조사는 ‘인쇄매체’ 3.1시간), 동 조사의 연평균 도서 독서율은 76.3%(유럽연합이 조사한 유럽인의 연평균 도서 독서율은 58%) 등이었다는 점과 비교해볼 때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조사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쇄매체 관련 산업 강국인 독일, 미국, 이탈리아, 영국, 일본이 한국과 함께 독서시간(정확히는 인쇄매체 접촉시간) 최하위권 국가로 분류된 것도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 통계이다. 통계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도 석연치 않다. 독서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충격적인 통

계치를 선정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작전상(?) 순기능이 있겠으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사실과 달리 자국민을 독서 후진국 국민으로 낙인찍는 것은 지나친 피해망상이다.

고무줄 출판통계의 원인 - 모순된 납본제도

▶ 사례

K문고 상반기 집계, 출간종수 38% 증가, 인문서는 불황(2005.6.26, H경제)

“……K문고에 따르면 상반기 출간종수는 지난해보다 38.8% 늘어났으나 인문서 출판은 침체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난해 책값 4.5% 올라(2006.1.15, 연합뉴스)

“……신간 발행량의 경우 발행종수가 총 4만 8,535종으로 전년도에 비해 23.2%나 증가한데 비해 발행부수는 2,745부로 10.8% 감소했다……”

위의 기사 2건은 대다수 일간지에서 보도한 지난해 상반기 출판시장 동향 결산 기사와 출판통계 기사이다. 먼저 K문고의 보도 자료는 「출간종수 38.8% 늘어」라는 소재목 아래 “대한출판문화협회 조사에 의하면 2005년 1월에서 5월까지 2만 67종, 5천2백28만 8,091권이 출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출간된 1만 4,454종, 4천4백67만 8,148권과 비교해 38.8%(종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지만 증가 이유는 적시하지 않았다. 2004년 3만 5,391종이던 신간 발행종수가 2005년에 4만 3,585종으로 23%나 급증한 것에도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전년 대비 발행종수 증가율이 종교 72%, 순수과학 65%, 언어 50% 등 상식선에서 설명이 어려울 만큼 높기 때문이다. 종당 판매량이 저조해지면서 출판사들이 발행종수를 늘렸다는 식의 해설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문제의 비밀은 바로 납본(納本) 체계에 있다.

1960년대 초반부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관례적으로 대행하던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업무는 2004년 하반기부터 6개월 단위의 불안정한 용역 계약 형태로 바뀌더니 일시적으로 서지 DB(KOMARK) 작업을 통합 대행했었으며, 2005년 상반기의 경우 기존 통계에서는 수용되지 않았던 출판사의 국립중앙도서관 직접납본량(연평균 40% 추정)이 일시적으로 몰린 경위가 있다. 출판협회가 “납본대행 통계는 출판계 전체 발행통계가 아님”을 밝히고 있음에도 언론 등에서 이를 명시하는 경우는 없다. 출판 발행량이 상반기에 갑자기 40%, 연간 23% 증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상적인 납본치에 가깝게 일시 복원된 통계치라는 것이다. 불황 국면에서 발행량의 급증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보도자료 제공자이든 언론사이든 그 배경에 의문을 갖지 않았던 점이 의아스럽다.

국립중앙도서관 직접납본과 출판협회 대행납본이 공존하며 통합적인 납본통계조차 없다는 점은 국가 서지통정상의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 기관들조차 출판협회의 부분적인 납본 통계를 확정된 출판통계로 이용하는 것은 난센스라 하겠다. 정부는 출판협회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납본 창구 일원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외 번역출판, 한국 796종 대 일본 2만 종?

작년 10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개최를 전후해 화두가 된 것은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번역 활성화 문제였다. 이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사례가 일본과의 상대적인 비교이다. “일본 정부는 1945년부터 1990년(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일본이 주빈국 행사를 개최한 해)까지 2만여종의 해외 출간을 지원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한국문학번역원을 통해 1979년부터 현재까지 25

개국 796건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는 보도가 2년여 전부터 수도 없이 언론 매체에 등장했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없는 수치이며, 반일 내지 극일 감정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번역 활성화 논리가 여과 없이 전달된 것이다. 전략은 성공했으되 사실은 왜곡된 것이다. 이를테면 이렇다.

▶ 사례

「인터뷰, J 한국문학번역원장(2004.3.15. 연합뉴스)」

“질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번역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대답: 번역원은 모두 400여 권의 문학도서를 번역했다. 일본은 90년 주빈국으로 선정됐을 때 이미 문학서 1만 5천 권을 포함해 2만여 권의 번역서를 펴낸 상태였다. 이는 45년 설립된 재팬 파운데이션의 지원에 의한 성과였다. 결과를 놓고 보면 부끄러운 수준임에 분명하다……”

일본은 주빈국 개최 당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일본도서 1,990권(개최연도 의미)과 함께 독일 측 북페어 사무국이 세계 각국에서 수집해준 일본 관련 도서 1,936종을 <세계의 일본 관련 도서전(Books on Japan)>에 전시했다(일본 주빈국 실행위원회 발행 사업보고서). 분야별로는 일본문학이 286종이며, 인문·사회과학 868종, 총류·사전·실용서 252종 등이다. 일본 문학이 아닌 ‘일본 관련 도서’ 이므로 다양한 장르의 번역판과 자국에서 발행한 책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

이때 『일본 도서의 해외 번역출판 목록』이 2권으로 발행되었다. 『Japaness Literature in Foreign Languages 1945~90년』(문예편) 및 『Japaness Publications in Foreign Languages 1945~90년』(인문, 기타편)이 그것이다. 앞의 문예편 목록에는 문학작품·평론·픽션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일본 문학작품 단행본과 잡지 등에

발표된 단편, 외국인의 연구논문 등을 모두 포함시켜 약 1만 5,000종의 목록이 수록되었다. 뒤의 기타편 목록에는 일본 국내외에서 외국어로 발행된 이동서, 자연과학·공학, 인문·사회과학 등 5,300종의 비문학 출판물 목록이 수록되었다.

다시 말해 1990년 당시까지 일본문학 도서 2만 종이 외국어로 번역되었거나 도서전에서 전시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현지어로 쓴 일본 관련 논문류와 일본에서 외국어로 발행된 것까지 모두 합쳐 '외국어로 된 서지사항 2만 편'을 정리한 목록집을 발행한 것이다. 이것이 와전되었을 뿐 아니라 한 기관의 한국문학 번역종수와 동렬에서 비교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번역 실적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이 발간한 『한국문학 번역서지 목록』(1999년만 보아도 98년까지 18개 언어권에서 번역된 한국문학 단행본은 949권, 번역 건수 1만 6,211편의 작품이 올라 있다. 세계 무대에 등장한 역사적 연원이 다르므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2만 종 대 796종이라는 1/25의 격차는 결코 아니다. 일본 역시 몇몇 작가를 제외하면 문학수출이 우리처럼 난제이며, 우리보다 훨씬 앞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간지의 기사만 보아도 이런 사정을 알 수 있다. 니혼게이지신문(2003.4.5) 기사를 보면 “일본 도서의 번역이 적은 것을 문제로 인식한 국제교류기금(재팬 파운데이션)은 설립 이래 30년간 약 900건의 번역출판에 총계 9억 엔을 지원했다... (중략)... 출판물의 수출입은 20년 전의 36대 1의 무역역조에서 현재는 20대 1로 개선되었다... (중략)... 문화청은 작년부터 3억 엔을 들여 일본 작가 27명의 작품을 영역하여 미국 등에 기증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다.

제대로 된 출판통계가 지식정보사회의 지표로서 생산·유통되고 언론이 이를 적실성 있게 활용한다면 맥 빠지는 불황론과 ‘책 안 읽는 국민’ 등의 위협적 소구의 미망 대신 책 읽는 사회의 큰 그림을 보다 멋지게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출판계도 이제는 큰 덩치에 맞게 어른의 옷으로 갈아입고 성숙한 내실을 기해야 할 때이다.

이외에도 사례는 무수히 많다. 다만, 이상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출판 관련 통계를 다룬 언론의 오보는 대체로 취재원의 잘못된 정보 제공, 언론사의 확인보도 및 검증체계 미흡, 조사 분석의 둔감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출판과 관련된 기본 통계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는 것조차 매우 부실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상황이다. 가장 기초적인 납본통계의 정비, 정교한 시장통계의 확립, 투명한 베스트셀러 집계 시스템 등 과학적인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출판의 질적 발전은 요원하다.

출판과 언론은 불가분의 공존관계이며 단순한 정보 중개자가 아니라 지식정보사회의 뼈, 심장, 근육을 건강하게 키워가는 문화의 모세혈관이자 시대정신의 양대 수로(水路)이다. 제대로 된 출판통계가 지식정보사회의 지표로서 생산·유통되고 언론이 이를 적실성 있게 활용한다면 맥 빠지는 불황론과 ‘책 안 읽는 국민’ 등의 위협적 소구의 미망 대신 책 읽는 사회의 큰 그림을 보다 멋지게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출판계도 이제는 큰 덩치에 맞게 어른의 옷으로 갈아입고 성숙한 내실을 기해야 할 때이다. 